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결혼식 헌정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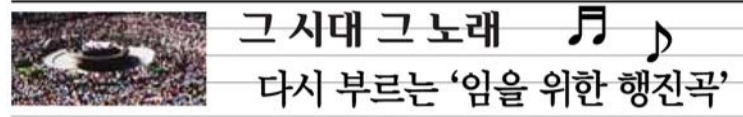


**신양 윤상원**  
1971년 전남대 입학  
노동자·들불야학 교사  
5·18 시민군 대변인  
80년 계엄군 총에 사망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 묘역. 신양 윤상원 열사와 신부 박기순 열사의 결혼식이 열렸다. 한겨울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묘역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깊은 적의를 깨고 행한 바람이 불어왔다.

생전의 윤상원은 노동자이자 들불야학 교사로 활동하던 청년이었다. '노동자'와 '야학 교사'는 그의 삶의 지향이었다. 시대의 불의에 결코 눈을 감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미 그의 삶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윤상원은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계엄군의 만행에 맞서 광주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책무이자 운명이었을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5시 계엄군이 도청을 향해 진입해 들어왔다. 윤상원은 결코 도망을 가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신군부의 만행과 폭압에 결코 눈감지 않고 죽음으로써 시대의 증언자가 되겠다 다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장렬히 산화한다. 그의 나이 불과 서른한 살이었다. 야학교사를 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청년은 그렇게 계엄군의 총탄에 스러져갔다. 박기순 열사. 1976년 전남대 역사교육학



## 〈2〉 탄생 비화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야학 동지 박기순 영혼 결혼식  
소설가 황석영 등 문화운동가들 노래극 '넋풀이' 7곡 제작  
광주의 아픔 넘어 어두운 세상 밝히며 산자들의 임무 일깨워

과에 입학한 그녀는 1978년 3학년 때 시국사건으로 무기정학을 당한다. 역사학이 남달랐던 여학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같은 해 7월 광천동에 들불야학을 창립해 노동자 야학 운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해 12월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기에 이른다.

윤상원은 1978년 12월 27일 자신의 일기장에 '영원한 노동자의 벗 기순이가 죽던 날'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전남대 선배 사이었고, 들불야학의 동지였던 이들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노래가 만들어진 이후 영혼결혼식에 바쳐졌다고 보는 게 맞다. 다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배경에 관한 일화다.

그해(1982) 4월 광주 운암동에 살던 소설가 황석영의 집에 지역 문화운동가들이 모여 들었다. 당시 김종률, 전용호, 오정목, 윤만식, 김선출 등을 비롯한 10여 명이 5·18민중항쟁 2주기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난 2월에 치러진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에 바치고

살아남은 자들의 의지를 결연히 다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노래극 '넋풀이'가 탄생했다. 이 '넋풀이'에 수록된 7곡 중 대미를 장식한 곡이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황석영이 백기완의 장편시 '뫼비우스'를 개작해 가사를 붙였고, 김종률이 곡을 붙였다. 그리고 전용호는 노래극의 공연팀을 구성했다.

"'넋풀이'를 제작하기 위해 모인 사람 중에 아무도 참여의 계기를 묻지 않았다. 서로의 친분관계로 모인 문화일꾼들은 오히려 이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김종률도 참여하라는 제안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때는 그랬다. 적어도 광주 사람이라면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광주에서 민중항쟁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겪은 학살의 현장에 있었다면 불참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산자들이 남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신심만이 불타올랐던 것이다."(박종화, 『서예와 함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심미안, 201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5·18국립묘지에서 진행된 추모식 장면(왼쪽)과 윤상원 열사 생가 모습. <윤상원기념사업회 제공>

## 황석영 집에서 녹음된 '임 행진곡' 테이프 어떻게 배포됐나 감시 때문에 인쇄 못하고 타자기로 표지·가사 제작 1982년 기독교청년협의회 명의로 2천개 복사 배포

### 1983년 YWCA 전국대회서 첫 선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인 박종화는 1박 2일 동안 황석영의 집에서 노래극 '넋풀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으로 전체 녹음이 끝났다고 그의 책 '서예와 함께 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밝힌다.

연주와 가창, 시낭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문화운동주체들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이다. 덩으로 게 짓는 소리까지 불청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니 녹음할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극 '넋풀이'의 녹음테이프(사진)는 어떻게 배포됐을까. 무엇보다 감시망을 피해야 하고 다량을 복사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테이프의 표지를 인쇄하지도 못한 채 타이프를 쳐서 표지와 가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황석영이 화가 홍성담과 함께 서

울로 가지고 갔다. 테이프는 1982년 기독교청년협의회 명의로 2000개가 복사돼 배포됐다고 한다.

"첫 무대 공연은 1983년, 전국 YWCA 전국대회에서 놀이패 '신명'의 윤만식의 연출로 광주 YWCA 회원들이 선보였고 큰 호응을 얻었다. 1983년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작곡가 김종률은 서울의 거리를 걸다가 자신이 작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정유하,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 한울, 2017)



올해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현악곡 서곡의 작곡 위촉을 맡은 황호준(47) 작곡가는 당시의 상황을 밝힌 적이 있다. 황 작곡가는 소설가 황석영 씨의 아들이다. 그는 당

시 초등학교 뇌리에 박힌 장면들은 어제의 일처럼 또렷했다.

황 작곡가는 "운암동 2층 집에서 노래 녹음을 하던 날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며 "평소 아버지는 2층 집필실에

서 글을 쓰셨는데, 그날만은 사람들을 모두 2층으로 올라오게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77년 무렵 '장길산'을 집필하기 위해 해남으로 가셨어요. 이후 78년 광주로 이사와 와 양림동에서 잠시 살았어요. 그리고 81년에 다시 운암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당시의 집터는 지금의 문예회관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는 "무거운 커튼이 쳐지고, 내부의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음'을 한 뒤 녹음이 시작됐다"며 "노래는 장엄했고, 무언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정서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임을 위한 행진곡'은 폭압의 시대를 뚫고 탄생했다.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노래는 그렇게 광주의 아픔을 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노래가 되었다. 오늘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국의 강산에 울려 살아있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